

수변문화 프로그램, 불 꺼진 항구마을에 문화를 더하다

손유진
(주)공유를위한창조 팀장

도시화된 어촌의 이면

장승포권역 시범사업 대상지는 몇 가지 특이점이 있다. 2개 행정동(洞)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대상지의 대부분이 생활서비스 시설 접근성이 우수한 편이라는 점, 그리고 어업종사자가 전체 인구 1만 5,426명 중 어업종사자가 72명으로 1%가 채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이다. 여기서 '장승포권역'은 경상남도 거제시의 동쪽에 위치한 '장승포동'과 '능포동'을 의미한다. 어항을 중심으로 형성된 장승포동과 능포동은 과거 '장승포시(市)'라는 하나의 행정구역이자 옥포조선소의 배후 지역으로 발전하며 도시화가 진행된 어촌이기도 하다.



장승포동(좌)과 능포동(우) 전경



© 장승포를 위한 창조

장승포동, 능포동 인구 소멸위험지수 현황표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거제시	1.72	1.58	1.43	1.28	1.12	0.89	0.84	0.715
	위험 낮음	위험 낮음	위험 보통	위험 보통	위험 보통	위험 주의	위험 주의	위험주의
장승포동	1.47	1.15	0.88	0.72	0.63	0.53	0.51	0.428
	위험 보통	위험 보통	위험 주의	위험 주의	위험 주의	위험 주의	위험 주의	위험진입
능포동	1.27	1.03	0.86	0.71	0.59	0.48	0.44	0.357
	위험 보통	위험 보통	위험 주의	위험 주의	위험 주의	위험 진입	위험 진입	고위험

출처: 2022년 3월, 2023년 2월 읍·면·동 수치와 거제시의 2021년을 제외한 전 기간 수치는 이상호, 김필(2022.3.), 그 외 읍·면·동 수치는 KOSIS 인구통계 수치 활용해 도출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장승포권역을 방문하는 이들로부터 ‘여기는 다 있네’라는 이야기들을 듣곤 한다.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뜻일 터이다. 실제로 장승포권역은 도보권 내에 편의점·대형마트·식당·세탁소·수선집과 동 주민센터가 있고, 배후에는 산이 자리하고 전면에는 바다가 드넓게 펼쳐져 있다. 전체 생활만족도는 3.165점(5점 만점) 수준이며 여가·문화, 복지, 교통, 체육, 의료 순으로 높은 만족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조선업의 장기 불황으로 인한 근로자 유출과 여객선터미널 폐업 등 관련 산업의 축소로 인구 유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고령자 비율이 15%대로 거제시 관내 동 단위 지역 중 고령화가 심각한 동네이다. 이처럼 다 갖춰진 듯한 겉모습의 이면에는 타 지역으로 떠나는 사람들과 문을 닫는 가게들, 점점 빛을 잃어가는 상점가가 있었다.

불 꺼진 항구마을의 꿈

이러한 장승포권역을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지역주민 수요 조사와 의제 발굴 과정에서 도출한 지역주민·상인·청년들의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니 침체된 장승포권역에 사람들이 찾아오고 머물렀으면 하는 욕구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는 수변공원과 골목 및 폐가 등을 활용한 지역특화 즐길 거리와 이러한 즐길 거리를 창출하는 공간과 인적자원의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지역의 빈 공간들에 이른바 ‘즐길 거리’를 매개로 사람들이 찾아오고, 이에 따라 주변 상점가에 다시 활력이 돌아왔으면 하는 것이 장승포권역 사람들의 꿈이었다.

<p>장승포 · 능포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p> <p>공복경제팀 장승포 관변단체 협상 편의 공</p>	<p>문화와 여가를 위한 공간으로 극장이나 무대가 생겼으면 좋겠다.</p> <p>바다, 바람, 물 등 장승포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축제가 생기면 어떨까?</p> <p>문화복지팀 능포 시민 생활 편의 공</p>	<p>우리지역의 문화복지 사업이 앞으로 필요한 내용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p> <p>문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p> <p>문화복지팀 장승포 관변단체 오찬 식의 공</p>	<p>누구를 위한 인구 유입을 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한다.</p> <p>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행사로 마을의 경관을 아름답게 하며 능포 인구유입에 좋은 영향을 줘야한다.</p> <p>인구유입팀 능포 관변단체 순복 식의 공</p>
--	--	---	---

의제 발굴 워크숍 과정에서 도출한 이야기들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것의 ‘근원’을 찾아 보면 결국 즐길 거리가 언급되었다. 장승포권역 시범사업의 방점이 ‘문화’인 것도 이 때문이다. 무언가를 구심점 삼아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로 인하여 빈공간이 채워지고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였다.

장승포권역에 사람들이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자원에는 무엇이 있을까? 지역자원 조사와 의제 발굴 과정에서 발견한 것은 다름 아닌 항구와 이를 둘러싼 수변공간이었다. 장승포항과 능포항 주변에는 크고 작은 수변공간들이 있었으며, 지난 5년간 추진된 사업으로 만들어진 거점시설들도 있었다. 능포항의 경우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다목적어항으로의 전환을 위해 수변공원 · 해상데크 · 낚시공원 등 해양레저 기반이 갖춰져 있었고, 장승포항과 능포항은 남파랑길 20번 코스에 해당하는 ‘장승포 해안로(2.5km)’로 연결되어 있었다.



장승포, 능포 수변공간 및 배후 거점시설 위치도

이처럼 장승포와 능포는 지역민들의 여가·문화 공간으로 사랑받는 해안로로 연결되어 있으며, 시대 흐름에 맞춰 어항 내에 해양레저 기능을 도입하여 방문 목적을 다각화하고, 방문객들의 체류시간을 증대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앵커조직의 주 역할과 사회혁신프로그램의 방향성은 지역에 마련된 수변공간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민들의 일상이나 방문객들과 연결하는 것이었다.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수변공간 만들기

능포: 지역축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변문화행사

능포항은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동 중에서도 가장 동쪽 끝에 있다. 입지 여건상 장승포를 거쳐 도달할 수 있는 곳으로, 능포항의 양쪽에는 능포수변공원과 능포낚시공원이 조성되는 등 다기능 어항으로 전환하기 위한 수변공간들이 마련되어 있다.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차박’ ‘캠핑’ ‘낚시’ 등의 성지로 알려져 있으나 쓰레기 문제로 곳곳에 ‘차박 금지’ 현수막이 걸리는 등 해양레저 기반을 갖추었음에도 지역의 매력으로 드러내기에는 장벽이 많은 실정이다. 지형적으로도 단절되어 있어 도보 접근성 또한 떨어져 지역축제 홍보 및 모객 시 어려움이 따르기도 한다.

이에 이미 조성된 해양레저 기반을 건전하게 활용하는 법을 고민하였다. 사회혁신프로그램 준비 과정에서 사전 기획 프로그램으로 진행한 건전한 캠핑문화 확산과 더불어 수변공간 체류시간 및 활용도를 증대하는 캠페인 ‘건전캠핑’, 능포낚시공원을 활용하여 개최된 ‘밖에서마켓(중고 아웃도어 용품을 거래하는 폴리마켓)’도 그런 맥락에서 운영하였다.

건전캠핑 캠페인은 능포동 지역축제인 ‘양지암 조각축제’와 연계하여 운영하였다. 캠페인 장소는 그간 차박금지로 인하여 폐쇄되어 있던 능포수변공원 잔디밭을 지역사회의 협조를 받아 임시로 개방하여 운영하였는데, 이는 차박을 하지 못해 아쉬워하던 사람들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었다. 해당 활동 이후 능포수변공원은 야외 영화제와 거제 정원산업박람회 등 수변공간의 장점을 활용한 문화행사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장승포: 수변 문화 콘텐츠 발굴 거점

장승포동은 국제무역항인 장승포항을 중심으로 상업지와 주거지가 형성



팝업 공간 DIT



씨푸드 크리에이터 선발대회



수변문화주간

어촌스테이션 프로그램 시범운영 사례

되어 있다. 1965년 개항장으로 지정되어 장승포수협, 수산물유통센터, 지심도·외도·해금강 여객선터미널을 보유하여 인접 지역의 경제·관광 중심지로서 발전해 왔다. 그러나 해당 기능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지역 상권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지역 내 인구 또한 2016년 마전동과의 통합으로 1만 명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5년간 인구 절반이 떠나가면서 ‘불 꺼진 항구’라는 이미지가 있었다.

불 꺼진 항구를 다시 밝히고자 장승포동에는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하늘카페, 커뮤니티센터, 장승포차, 송구영신 소망길, 장승포 유자막걸리 등 지역 내 체류를 도모하는 거점시설들이 만들어졌다. 이중 실제 운영 주체가 존재하며 사업 운영 중인 시설 외에 실제 활용 가능한 시설물을 중심으로 연계 가능 방안을 구상할 필요가 있었고, 그렇게 사업기간 내 앵커 조직이 위탁 운영 중인 거점공간 청년문화거점을 최대한 활용한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청년문화거점은 사회혁신프로그램 ‘팝업 공간 DIT(Do It Together)’를 통해 사회혁신프로그램 및 어촌스테이션 조성 전의 테스트 베드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DIT 과정에는 목공, DIY(Do It Yourself), 공간 기획에 관심 있는 거제시·경남·부산권역 청년과 지역민들이 참여하였고, 이후 관내·관외 링커조직 활동 거점으로 사회혁신프로그램 ‘씨푸드 크리에이터 선발대회’를 비롯한 수변문화 및 콘텐츠 발굴을 위한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2024년 상반기에 지역 내 창작자들과의 협업으로 바다와 해양 환경 주제의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2주간 선보이는 ‘수변문화주간’을 개최하여 동일 관심사 및 주제의 창작자 8인이 한자리에 모이고 서로의 작품을 공유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하였다. 마지막 4일간은 매일 창작자들의 ‘바다’를 주제로 한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 가운데 5명의 창작자는 개발 중인 체험 프로그램과 기념품에 대한 창작자의 고민을 공유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축제에 함께 참여하여 개발 중인 상품과 체험을 시연하는 등 협업 커뮤니티로 발전하기도 하였다. 장승포동 내에서도 발길이 좁처럼 이어지지 않는 거리에 창조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주체들이 늘어났다는 점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편하고 창조적인 기회의 장으로

현재 장승포권역은 수변공간들이 지역의 고유한 문화 기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의 공간과 기능을 논의하는 시점에 있다. 한편으로는 사회혁신프로그램으로 발굴한 잠재적 활동 주체, 링커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장승포권역을 활동 근거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앵커조직에서는 과거 교역과 어업의 중심지였던 항구 및 주변 일대를 ‘머물고 싶은, 가고 싶은 수변공간’으로 재정의하고, 바라보지만 하던 어항과 그 주변 공간들을 보다 일상 가까이로 끌어들이 수 있는 매개체를 발굴해 왔다. 그간 축제·행사·체험 형태로 수변문화를 공유해 왔다면 앞으로는 상시로 이를 경험케 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편하고, 창조적인, 기회의 장’. 수변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 링커의 표현을 빌리자면 앞으로의 방향은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행위를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일상적이고 편안함을 느끼는 장소에서 지역 고유의 매력이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승포·능포 지역민들에게 익숙하고, 언제나 일상 곁에 자리한 수변공간들은 이 지역의 매력적인 일상과 문화를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곳이라고 본다.

창작자들에게는 편하고 창조적인 기회의 장으로, 지역민들에게는 편안함 속에서 일상의 충만감을 즐기는 장소로, 방문객들에게는 지역의 매력적인 문화경관으로. 이는 박정일 장승포권역 앵커조직 총괄 PM의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거실’이라고도 할 수 있다. 지역의 수변공간들이 다시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문화 기반으로 작동하려면 ‘거실’ 같은 공간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도 수변공간들이 편하고 창조적인 기회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이상호, 김필, (2022.3.). 지방소멸위험지수 원시자료. 한국고용정보원.